

##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Assertive Behavior,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Academic Achievement in Late Childhood\*

조희원(Hee Won Cho)<sup>1)</sup>

박성연(Seong Yeon Park)<sup>2)</sup>

지연경(Yeon Kyung Chee)<sup>3)</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mechanisms by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temperament influences academic achievement in late childhood.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on achievement would be mediated by assertive behavior on the part of childre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self-report questionnaires completed by 657 elementary school children (343 boys, 314 girl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emonstrated that child temperament affecte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both assertive behavior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his was evidenced across the entire sample. Child temperament (approach-withdrawal, mood quality, persistence) also had a number of positive effects on assertive behavior (directiveness, social assertiveness, defense of rights and interests) and maternal parental behavior (warmth-acceptance, guidance). These results were found to be the case for both boys and girls.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 revealed tha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achievement for boys, whereas assertive behavior played the same role for girl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 approaches in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levels of

\* 본 논문은 2011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sup>3)</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academic achievement which give due consideration to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as well as parenting, based on child gender.

**Key Words** : 기질(temperament), 주장적 행동(assertive behavior), 어머니 양육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학업성취도는 이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관심사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 이루어진 학력평가 조사에서 OECD 20여개 국가들 가운데 2위를 기록(조선일보, 2009. 01. 01)할 만큼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며 학업성취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추세이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학업성취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아동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다양한 맥락의 환경적 변인에 관심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는 연구 초기의 경우 특히 지능에 관한 연구로부터(예; 김정희, 1972; Simons, 1975) 자아개념(예; 서용선, 1982)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외에도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박창남·도종수, 2005; De Graaf & Ganzeboom, 1993)가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특히 1990년 이후부터는 환경적 변인으로 아동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 또래 또는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관심, 그리고 아동의 개인적 변인으로는 기질이나 성취동기, 자아효능감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 변인 중에서도 Wang, Haertel과 Walberg(1993)는 학업성취에 보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여러 국의 연구들에서 학령기 아동의 기질적 특성인 끈기나 낮은 활동수준이 아동의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으며(Al-Hendawi, 2010; Bramlett, Scott, & Rowell, 2000) 긍정적 정서나 주의집중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Coplan., Barber, & Legace-Seguin, 1999)되어 끈기나 활동수준, 정서성 및 주의집중력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질요소임을 시사해준바 있다.

그러나 기질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 국내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나 주의집중력이 높고 활동수준이 낮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다(윤정민, 1997)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활동수준이나 부정적 정서가 높고 적응성이 낮은 특성의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는 보고(최옥희·김용미, 2008)도 있어, 기질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비 일관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 일관적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이 두변인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기질이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의 변인,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성을 고려하지 않은데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성격의 토대로서 생물학적 요인에 근거하는 행동적인 개인차로 정의되는 기질(Goldsmith &

Rothbart, 1996)은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져,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적 특성은 부모의 강압적,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적극적이고 자기규제를 잘하는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Sanson, Hemphill, & Smart, 2004). 이와 유사하게 아동이 높은 부정적 정서성을 나타낼 때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덜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김은진 · 박성연 · 임희수, 2009). 반면, 활동성이 높고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기질의 영아가 어머니로부터 반응적인 양육을 받는다는 결과(박성연 · 유명희, 1992)나 기질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 높은 걸음마기 아동이 어머니의 과보호나 통제적 행동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박성연 · Rubin, 2008)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또한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양육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상래, 2002; 박순길, 2004; 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Bronstein, Ginsberg, & Herrera, 2005).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주도적이고 지지적일수록 학업성적이 뛰어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최옥희 · 김용미, 2008)도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결과(김은하, 2004; 차미탁, 2010; Hernandez, 2010)도 보고되고 있어 양육행동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역시

일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고 본다.

기질의 정의나 선행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아동의 기질은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행동과 발달 및 성격의 기초가 되므로(Goldsmith & Rothbart, 1996), 본 연구의 관심사 중 하나인 주장적 행동과도 관련될 것으로 가정된다. 즉 기질과 주장적 행동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수줍음이 많고 회피적인 아동일수록 주도력과 리더십이 낮았던 반면 인내력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을 때 주도력과 리더십이 높고(서기남 · 문혁준, 2009), 탈 억제적인 기질이 주장적 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Blatny, Jelinek, & Osecka, 2007)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끈기가 있을 때 리더십이 높다는(문혁준, 2010) 결과는 기질과 주장적 행동 간의 관계를 시사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Bronstein(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할 경우에 아동의 주장적 자기 표현력이 높았고, 체벌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 경우 주장적 자기 표현력은 낮았다. 국내에서도 서구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은 사회적이고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허용적이고 방임적이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일 때에 아동은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이지원, 1999). 유사한 맥락에서부모의 자율적, 애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리더십과 정적 상관을,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부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나미순, 2006). 따라서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장적 행동과 정적인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학업성적만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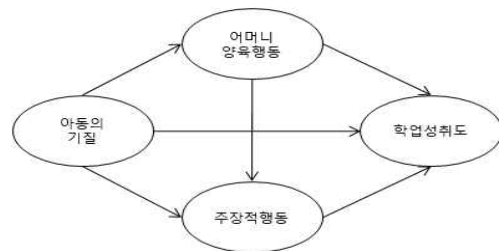
시 하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경쟁적인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만 높은 아동보다는 사회적인 능력을 함께 갖춘 아동이 더 유능한 아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집단 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며,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주장적 행동(Lorr & Morr, 1980)은 아동의 유능성을 대표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적 행동은 유능성의 또 다른 측면인 학업성취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장적 행동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주장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은 아동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이건순, 2003), 시험시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어(권명선, 2001), 주장적 행동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해보면,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질이 주장적 행동 및 어머니 양육행동에,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각 변인들 간 단순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연구결과에서 비일관성을 보인다. 또한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업성취도의 네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거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양육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과 어

머니 양육행동, 그리고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및 그 경로를 밝히는데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차적으로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이 여아보다 남아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설명해주며(황매향, 2006; 황지현, 2006), 학습자의 스트레스(양애경 · 조호제, 2009)나 시험불안(송숙희 · 김재은 · 정현지, 1991)등의 개인의 내적 요인이 남아보다 여아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몇몇 연구결과에 근거해볼 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도 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으로 부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과 주장적 행동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기질, 주장적 행동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7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아동 657명(남 : 343명, 여 : 314명)이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인지적·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임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상 아동의 평균연령은 10.9세( $SD = 3.81$ )였으며,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44.1세( $SD = 4.1$ ), 어머니가 41.2세( $SD = 3.8$ )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 50.4%, 47.9%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등이 60.4%,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약 52%로 가장 높았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주장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취도는 각 학교에서 실시한 중간고사 성적으로 측정하였고, 그 외 모든 변인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 1) 기질

기질은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 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 DOTS-R)중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6개의 하위요인(일반적 활동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집중성, 지속성)의 총 20문항을 수정 및 변

안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10문항을 제외하였다(송지준, 2009). 최종적으로 남은 10개 문항은 ‘접근-철회성(approach-withdrawal)’ 3문항(예 :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대개 그쪽으로 접근한다’), ‘기분(mood quality)’ 4문항(예 :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곧 잘 웃는다’) ‘지속성(persistence)’ 3문항(예 : ‘하던 일은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질 척도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성, 지속성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접근-철회성’이 .64, ‘기분’이 .67, ‘지속성’이 .69로 나타났다.

#### 2)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김지신(1996)의 양육행동척도와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척도를 기초로 하여 친밀감, 자율성, 통제에 관한 문항을 보완한 김혜영(2000)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3개 하위요인(애정·수용, 합리적 지도, 통제)의 총 2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1개 문항을 제외하여 3개 하위요인인 ‘애정·수용’ 6문항(예 :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다독겨려 주신다’), ‘합리적 지도’ 5문항(예 : ‘나를 야단치실 때 내가 잘못된 이유를 자세히 지적해 주신다’), ‘통제’ 8문항(예 : ‘내가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따르게 하신다’)의 총 19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인 양육행동이나 합리적인 지도행동,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애정·수용’이 .82, ‘합리적 지도’가 .60, ‘통제’가 .79로 나타났다.

### 3) 주장적 행동

주장적 행동은 Lorr와 More(1980)가 제작한 성인용 주장적 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학령기 아동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4개 하위영역 중 우리나라 문화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 ‘독립성(independence)’ 영역을 제외하고, ‘지도성(directiveness)’, ‘사회적 주장성(social assertiveness)’, ‘권리와 이익 방어(defense of rights and interests)’의 3개 하위영역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9문항을 제외하여 ‘지도성’ 6문항(예: ‘집단에서 책임을 맡는 역할을 할 때 일을 가장 잘 한다’), ‘권리와 이익 방어’ 3문항(예: ‘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 손상이 간 채로 돌려받았을 때,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사회적 주장성’ 3문항(예: ‘처음 본 사람에게 관심이 가면 적극적으로 친해지기를 시도한다’)의 총 1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측정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장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는 ‘지도성’이 .71, ‘권리와 이익 방어’가

.50, ‘사회적 주장성’이 .72로 나타났다.

###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각 학교의 2009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중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의 성적총점을 학급별 백분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sup>1)</sup> 점수 범위는 0~100까지이며,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 절차는 먼저 SPS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먼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Pearson 직률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한편, 아동 기질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이 부분 매개 하는 경로로 설정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이 기질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는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중간고사는 각 학교마다 내용이 다름에 따라, 한 검사에서 특정 점수 T를 받은 학생과 다른 검사에서 같은 누가백분율에 위치한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같은 T라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결국 두 검사형의 변환 점수의 분포는 같게 된다는 동백분위방법(equipercntile equating)을 사용하였다(남현우, 2001).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i>df</i>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183.334	59	.937	.957	.942	.956	.057

### Ⅲ. 결과분석

####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주장적 행동 및 학업성취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chi^2$ 값은 183.334(*df* = 59), 증분적합도 지수 중 NFI, IFI, TLI, 그리고 CFI는 모두 기준치인 .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 적합도 지수 중 RMSEA값은 .057로 기준치인 .06보다 낮게 나타나(표 1),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Hu & Bentler, 1999).

한편,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수들의 C.R. (Critical Ratio)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추정치가 .49~.85로, 각 측정변수들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 2.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 양

〈표 2〉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N* = 657)

잠재변인	측정변인	<i>B</i>	$\beta$	SE	C.R.	<i>p</i>
아동 기질	접근철회	1.292	.652	.128	10.063	***
	기분	1.395	.753	.133	10.494	***
	지속성	1.000	.485			
모 양육행동	통제	1.000	.558			
	합리지도	-.938	-.607	.077	-12.228	***
	애정수용	-1.858	-.944	.159	-11.716	***
주장적 행동	권리방어	1.000	.508			
	사회주장	1.330	.768	.125	10.673	***
	지도성	1.080	.625	.107	10.120	***
학업성취도	수학	1.000	.752			
	사회	.980	.793	.049	19.879	***
	국어	.854	.796	.043	19.958	***
	과학	.965	.854	.045	21.260	***

\*\*\*  $p < .001$ .

〈표 3〉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 65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접근철회	-												
2. 기분	.49**	-											
3. 지속성	.36**	.38**	-										
4. 애정수용	.21**	.38**	.18**	-									
5. 합리지도	.18**	.32**	.18**	.60**	-								
6. 통제	-.08*	-.31**	-.11**	-.55**	-.29**	-							
7. 지도성	.36**	.36**	.31**	.21**	.15**	-.20**	-						
8. 사회주장	.50**	.45**	.24**	.22**	.16**	-.14**	.49**	-					
9. 권리방어	.17**	.32**	.15**	.18**	.18**	-.25**	.34**	.41**	-				
10. 국어	.13**	.18**	.14**	.16**	.14**	-.12**	.19**	.14**	.11**	-			
11. 사회	.11**	.17**	.10*	.10**	.11**	-.12**	.09*	.13**	.04	.66**	-		
12. 수학	.15**	.18**	.15**	.13**	.14**	-.08*	.12**	.08*	.09*	.56**	.59**	-	
13. 과학	.07	.12**	.10**	.11**	.07	-.08*	.13**	.06	.03	.68**	.66**	.67**	-
M	2.83	3.21	2.80	3.15	3.06	1.83	2.67	2.75	3.19	82.59	81.08	80.64	83.75
SD	.62	.58	.65	.68	.55	.63	.60	.60	.67	15.90	18.32	19.70	16.75

\* $p < .05$ . \*\* $p < .01$ .

육행동, 아동의 주장적 행동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이 기질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개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3).

###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주장적 행동을 부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주장적 행동을 부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이론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

의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 각각을 거쳐서만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우선, 이론과 대안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부분매개를 가정하는 이론모형과 완전매개를 가정하는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chi^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  값이 임계치 ( $\Delta\chi^2 = 3.84(df = 1)$ ) 이상 감소하였으므로 대안모형을 구조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주장적 행동이 학업성취도

〈표 4〉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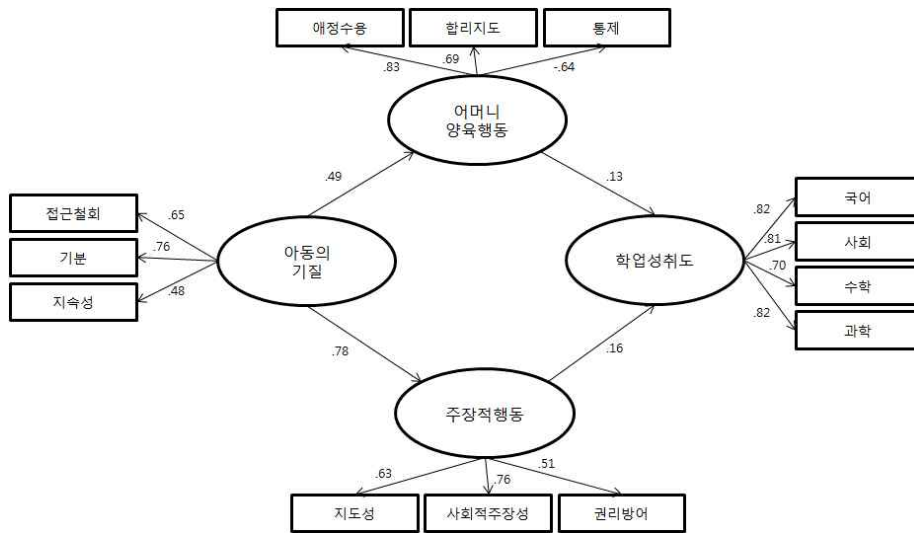
모형	$\chi^2$	df	NFI	IFI	TLI	CFI	RMSEA
이론모형	183.334	57	.937	.957	.942	.956	.057
대안모형	153.709	59	.947	.967	.956	.967	.049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N = 657$ )

모수	$B$	$\beta$	SE	C.R.	$p$
아동 기질 → 모 양육행동	.890	.493	.116	7.697	***
아동 기질 → 주장적 행동	.849	.777	.105	8.049	***
모 양육행동 → 학업성취도	3.084	.132	1.205	2.560	.010
주장적 행동 → 학업성취도	6.097	.158	2.116	2.881	.004

\*\*\*  $p < .001$ .



〈그림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 주2)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구조모형으로 채택한 대안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로의 경로계수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기질이 어머니 양육행동( $\beta = .493$ ) 및 아동의 주장적 행동( $\beta = .777$ )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끈기가 있는 기질의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합리적이면서도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고, 주장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은

각각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beta = .132$ ;  $\beta = .158$ ),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일수록, 또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또한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기질은 양육행동 및 주장적 행동에 대해 직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 = .493$ ;  $\beta = .777$ ),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beta = .190$ ), 양육행동 및 주장적

〈표 6〉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 ( $N = 657$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아동 기질→모 양육행동	.493	-	.493	.243
아동 기질→주장적 행동	.777	-	.777	.604
아동 기질→학업성취도	-	.190	.190	
모 양육행동→학업성취도	.132	-	.132	.059
주장적 행동→학업성취도	.158	-	.158	

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 다중상관치

행동은 간접효과를 제외한 직접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132$ ;  $\beta = .158$ )(표 6).

한편,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의 성에 따라 요인부하량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A)을 기준으로, 성에 관계없이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측정동일성을 비교하는 측정제약모형(B)과 구조공분산도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구조의 동일성을 비교하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을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모형은 측정제약모형 및 구조공분산 제약모형과 유의확률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성에 따라 모형에 차이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두 표본에서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교차타당성(김계수, 2007)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모형을 남아와 여아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성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남아와 여아 모두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성에 따른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기질은 남아와 여아 동일하게 어머니 양육

행동과 주장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남아 :  $\beta = .489$ ;  $\beta = .719$ , 여아 :  $\beta = .472$ ;  $\beta = .833$ ),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끈기가 있는 기질의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양육을 받고 주장적으로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학업성취도에는 남아의 경우 주장적 행동을 제외한 어머니 양육 행동만이( $\beta = .200$ ), 여아의 경우 어머니 양육 행동을 제외한 주장적 행동만이( $\beta = .275$ )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는 어머니 양육행동이 긍정적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여아는 주장적으로 행동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표 8, 그림 3, 그림 4). 또한 남아와 여아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기질은 어머니 양육행동과 주장적 행동에 대해 직접효과를 나타내었고( $\beta = .489$ ;  $\beta = .719$ ), 학업성취도에 대해 어머니 양육행동은 직접효과만을, 기질은 간접효과만을 나타내었다( $\beta = .200$ ;  $\beta = .148$ ). 또한 여아의 경우, 기질이 어머니 양육행동 및 주장적 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 = .472$ ;  $\beta = .833$ ), 학업성취도에 대해 주장적 행동은 직접효과만이 나타난 반면( $\beta = .275$ ), 기질은 간접효과만이 나타났다( $\beta = .237$ )(표 9).

〈표 7〉 성에 따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성별	$\chi^2$	df	NFI	IFI	TLI	CFI	RMSEA
남아	120.745	59	.920	.957	.943	.957	.005
여아	103.564	59	.930	.969	.958	.968	.049

〈표 8〉 성에 따른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657$ (남아 : 343, 여아 : 314)

경로	남아				여아			
	B	$\beta$	C.R.	p	B	$\beta$	C.R.	p
아동 기질 → 모 양육행동	.873	.489	5.500	***	.791	.472	5.182	***
아동 기질 → 주장적 행동	.712	.719	5.316	***	.951	.833	6.145	***
모 양육행동 → 학업성취도	5.230	.200	2.758	.006	.327	.016	.217	.829
주장적 행동 → 학업성취도	3.325	.070	.937	.349	8.334	.275	3.419	***

\*\*\*  $p < .001$ .

〈표 9〉 남아와 여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질, 주장적 행동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657$ (남아 : 343, 여아 : 314)

경로	남아				여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SMC
아동 기질→모 양육행동	.489	-	.489	.239	.472	-	.472	.223
아동 기질→주장적 행동	.719	-	.719	.517	.833	-	.833	.695
아동 기질→학업성취도	-	.148	.148		-	.237	.237	
모 양육행동→학업성취도	.20	-	.20	.055	.016	-	.016	.08
주장적 행동→학업성취도	.07	-	.07		.275	-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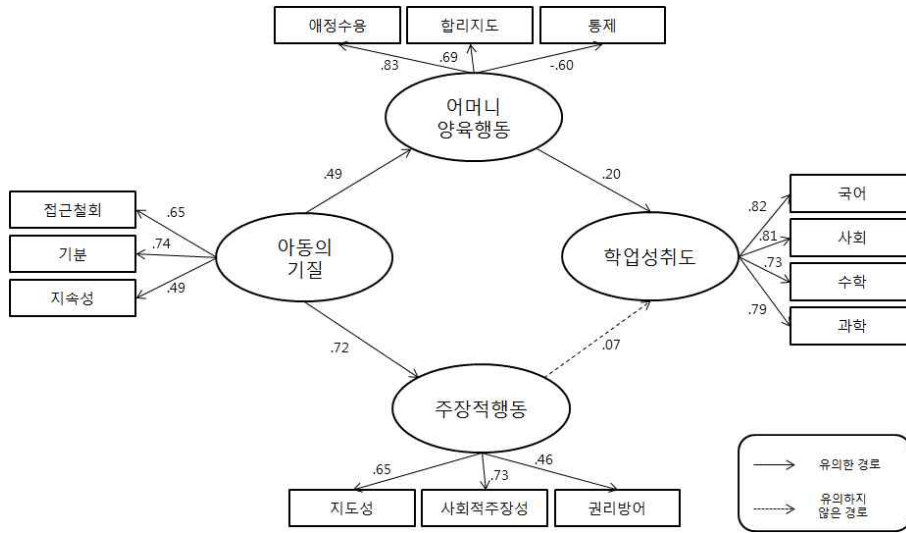
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 다중상관치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기질 및 주장적 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모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한편, 그 경로에 있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아동 657명을 대상으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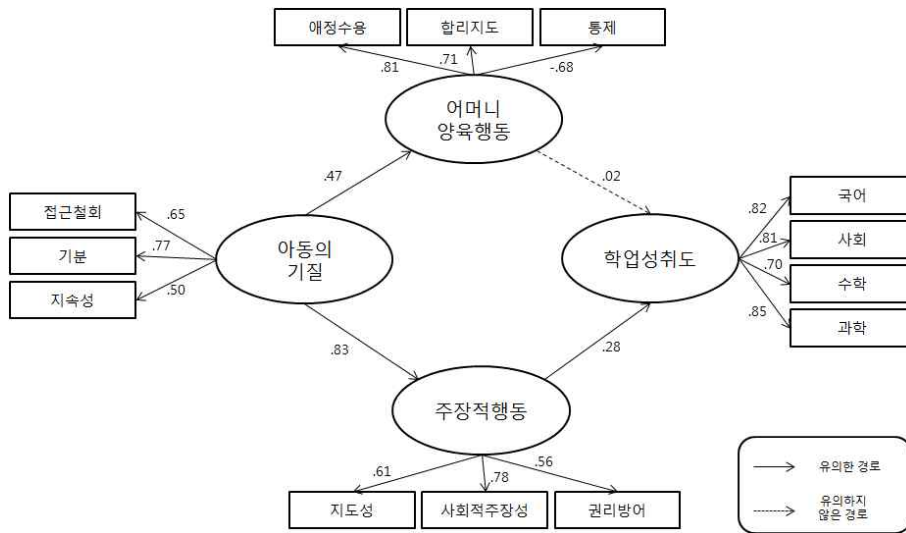
료를 수집하였으며,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자료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분석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기질적으로 낯선 대상 및 상황에 대해 접근을 잘 하고 긍정적 정서성이 높으며 끈



〈그림 3〉 남아에 대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2)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그림 4〉 여아에 대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2) 측정오차항은 생략함.

기가 있는 아동일수록 주장적으로 행동하고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인 양육을 받는 반면, 통제적 양육은 덜 받았다. 이는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적극적인 기질의 아동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김은진 외, 2009; Sanson et al., 2004)

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낮은 대상에 대한 접근성 및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끈기가 있는 기질이 주장적 행동의 발달을 격려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탈 억제적인 아동, 즉 새로운 대상에 대해 회피하기보다 접근성이 높은 아동이 주장적으로 행동한다는 Blatny와 동료들(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외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아 위험을 회피하는 기질의 유아에 비해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높은 기질의 유아가 주도력 및 리더십이 높았다는 서기남과 문혁준(2009)의 연구,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끈기가 있는 기질의 아동은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는 문혁준(201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긍정적 기분,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새로운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기질의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지도력 있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잘 챙기며 낮은 상황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바와는 달리, 아동 기질은 주장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주장적 행동의 발달을 격려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주장적 행동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이지원, 1999)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 양육태도가 성역할고정관념 및 내적동기를 통해서만(즉 완전매개함) 여아의 주장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하수정과 박성연(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제 3의 변인을 통해 아동의 주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영향기제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주장적 행동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 양육행동이 애정·수용적이고 합리적이며 덜 통제적일수록, 또 아동이 주장적으로 행동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보다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Beau et al., 2003; Bronstein et al., 2005)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주도-지시적일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최옥희·김용미, 2008)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김은하, 2004; 차미탁, 2010; Hernandez, 2010)와는 다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우선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최옥희와 김용미(2008)의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과는 달리,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은 인지적·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부모의 주도-지시적인 양육보다는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주장적 행동이 학교생활(이건순, 2003)이나 시험불안(권명선, 2001)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더하여 주장적 행동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아동의 기질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주장적 행동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최옥희·

김용미, 2008; Coplan et al., 1999)과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중 지속성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는 정적관계를 보인 한편, 활동성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냈던 선행연구 결과(윤정민, 1997; Al-Hendawi, 2010; Bramlett et al., 2000)와도 다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질은 아동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인 반면, 학업성취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외부적 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수많은 영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타고난 성향인 기질이 아동의 행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 양육행동 등의 환경 변인에 영향을 미쳐, 그것이 다시 아동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기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기질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에 따라 기질을 측정하는 척도의 민감성이나 측정결과의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기질과 주장적 행동, 어머니 양육행동 및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기질이 주장적 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동일하였으나 각 성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주장적 행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통제적이지 않은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Beane et al., 2003; Bronstein et al., 2005)와 맥을 같이 하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황태향, 2006; 황지현, 2006)를 뒷받침한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의 간접적 영향만을 언급한 다른 연구들(김승기, 2002;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과는 다르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함께 다루거나 아동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성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남아의 주장적 행동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성에 따라 주장적 행동의 개념이 다르게 해석된 것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의 행동이 더 과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장적 행동 역시 남아의 경우 학급 내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해석되기보다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나타난 결과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 주장적 행동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이 높고 주장적 행동을 하는 여아가 학업성취도 또한 높았다는 연구결과(하수정 · 박성연, 2011)와 일치하는 반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주장(김의철 · 박영신, 2008)과는 상반된다. 여아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본 연구결과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또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다시 아동

의 학업성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유미영 · 홍혜영, 2010). 또한 부-녀간 관계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딸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킴(하수정 · 박성연, 2011; Steinberg, 2001)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양육행동과 여아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을 포함한 연구 및 학업성취도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버지 양육행동을 함께 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접근성과 긍정적 정서성이 높고 끈기가 있는 기질은 주장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어머니로 하여금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도록 했으며, 이는 다시 아동의 높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기질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적응적이고 긍정적 정서성이 높으며 일에 대한 끈기를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 있어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있어, 남아와 여아 모두 기질이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장적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 양육행동만이,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주장적 행동만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일반화에 제약이 따른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방법과 상관관계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하고 인과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법만으로 측정하여, 응답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을 다루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이 학업성취도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아동의 주장적 행동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장적 행동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특히 여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또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선행되어 온 연구들은 그 변인과 경로에 있어 대부분 남·여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거나, 학업성취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단일적으로만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성에 따라 각각 다름을 증명함으로써 학업성취도가 중요한 관심사인 학령기 아동과 부모,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권명선(2001). 놀이 중심의 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시험불안 감소 및 주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수(2007). **AMO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상래(2002). 취업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기(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정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진 · 박성연 · 임희수(2009).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71-82.
- 김은하(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통제소재,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박영신(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2) :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4(1), 63-109.
- 김정휘(1972). 창의력과 지능 및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2000).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0), 205-223.
- 나미순(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현우(2001). **검사 동등화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문혁준(2010). 취학전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기질,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35-46.
- 박성연·유명희(1992). 온순한 유아와 까다로운 유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반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2), 173-191.
- 박성연·케네스 루빈(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순길(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창남·도중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서기남·문혁준(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 유아의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5), 107-121.
- 서용선(1982). 아동의 자아개념과 동료간 인기도 및 학업성취의 상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0(4), 257-257.
- 송숙희·김재은·정현지(1991). 시험불안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11-23.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 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양애경·조호제(2009).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9(1), 1-18.
- 유미영·홍혜영(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4(4), 915-937.
- 윤정민(1997). 중학생들의 기질이 과학 태도 및 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건순(2003). 자기주장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장성 발달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 피해에 미치는 영향 : 공격적 및 소극적 반응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일보(2009. 01. 01). 위기에 강한 한국의 저력 : 교육열 세계 최고. 미국 내 유학생 수 한국이 1위. <http://news.chosun.com>에서 2010. 12. 03. 인출.
- 차미탁(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옥희·김용미(2008).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 차이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17(2), 275-285.
- 하수정·박성연(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학령기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1), 133-149.
- 황매향(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



- 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황지현(200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Hendawi, M. (2010). The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 A 2-year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t-risk.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3), 1206-1222.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latny, M., Jelinek, M., & Osecka, T. (2007). Assertive toddler, self-efficacious adult : Child temperament predicts personality over 40 yea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8), 2127-2136.
- Bramlett, R. K., Scott, P., & Rowell, R. K. (2000). A comparison of temperament and social skills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graders. *Special Services in the Schools*, 16(1), 147-158.
- Bronstein, P. (1994). Pattern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Mexican Families :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3), 423-446.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 (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 Coplan, R. J., Barber, A. M., & Legace-Seguin, D. G. (1999). The role of child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early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in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 537-553.
- De Graaf, P. M., & Ganzeboom, H. B. G. (1993). Family background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for the 1891-1960 birth cohorts. In Y. Shavit & H. Blossfeld (Eds.), *Persistent inequality :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75-99)*.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 Goldsmith, H. H., & Rothbart, M. K. (1996). The Laboratory 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Prelocomotor Version, V.3.00. Unpublished manuscript.
- Hernandez, A. A.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 nurturance and monitoring dimensions of parenting, academic self-concept, and acculturation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orr, M., & More, W. W. (1980). Four dimensions of assertivenes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5(2), 127-138.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 Simons, J. (1975). How Effective is Schooling for Promoting Learning.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 Steinberg, B. S. (2001). The making of female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 The impact of birth order,

- sex of siblings, and father-daughter dynamics. *Political Psychology*, 22(1), 89-110.
- Wang, M. C., Haertel, G. D., & Walberg, H. J. (1993). Toward a knowledge base for school learning.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3), 249-294.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ST-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30.

---

2011년 8월 25일 투고, 2011년 10월 28일 수정  
2011년 11월 9일 채택